



① 성철 스님 일대기 특별전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주요 스님들이 성철 스님 석고상을 유심히 보고 있다. ② 특별전을 참관한 불자들이 백련결사 초록 등을 보고 있다. ③ 성철 스님의 친필 법어 '자기를 바로 봅시다' ④ 성철 스님의 덧신 ⑤ 성철 스님의 누더기 장삼



성철 스님 법향 봄바람 타고 솔솔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 맞아 특별전 등 다채

“자기중심적 사고가 팽배한 현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타인을 위한 삶을 일러주는 성철 스님의 행적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 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 스님

“스님의 철저한 구도정신과 청정한 계행, 청빈한 삶을 따라 실천하는 원력을 갖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

한국 불교의 거목 성철(性徹·1912~1993) 스님의 탄신 100주년인 3월 11일에 즈음해 스님의 정신을 잇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일대기 특별전 6월 3일까지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이 8일 조계종 출범 50주년과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을 겸해 개최한 ‘성철 스님 일대기 특별전’은 대중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날 개막 행사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현

웅 스님, 총무원 기획실장 정만 스님, 문화부장 진명 스님, 총무원장특별보좌관 원담 스님,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 불교문화재연구소장 미등 스님, 불교중앙박물관회 순양호 회장, 가천대 윤범모 교수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를 주제로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특별전에는 ‘탄신과 출가’, ‘수행과 결사’, ‘동구불출과 사자후’, ‘해인총림과 백일법문’, ‘종정과 한글법어’, ‘열반과 다비식’ 등을 주제로 한 유품 50점이 전시됐다. 또 ‘종단의 큰스님과 성철 스님’ 코너가 별도로 편성돼 서운·송산·광덕 스님 등과의 교우관계도 조명됐다.

특별전에 참가한 100여 대중들은 스님의 누더기 장삼과 백련결사 초록을 보며 성철 스님의 유품과 행적을 보며 감탄을 토했다.

개포동에서 온 수연화 보살은 “스님의

일대기와 다비식을 담은 영상, 스님의 수행 행적을 담은 전국 지도를 통해 스님의 행화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좋았다. 청빈한 수행기풍이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며 참가소감을 말했다.

원택 스님은 “10년 전 묘엄 스님을 뵈 때 특별전을 기획하게 됐다. 최근 3000배에 대한 평가가 성철 스님의 금권 권력으로 부터의 접근을 막는 것으로 긍정평가되는 현실에서 문도회 차원에서도 특별히 유념해 특별전을 준비했다”며 개최 계기를 밝혔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성철 스님은 종단의 정신적 초석 등을 다질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일깨우는 법문을 들려준 선지식”이었다며 “본래면목을 바로보고 권고독보하는 길을 이번 특별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축하했다.

이날 특별전에서는 국립민속박물관이 소장한 성철 스님 다비식 만장도 특별히 전시됐다. 다비식 만장은 국립민속박물관 관계자들이 다비식에서 쓰인 1000여 개 중 776점을 수거해 민속자료로 보관해오던 것

이다. 천진기 국립민속박물관장은 “당시 비로 인해 찢은 것을 보관하다 이번 전시전에 제공하게 됐다”며 “성철 스님 특별전은 종교를 넘어 일반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백련암 등 3박4일 아비라 기도

성철 스님의 탄생일인 11일에는 스님이 주석했던 해인사 백련암과 전국 사찰에서 1000여 명이 3박 4일간 ‘아비라 기도’를 올리는 등 수행열기도 이어갔다.

아비라 기도는 성철 스님이 당대(唐代) 총림(叢林)에서 진행되던 수행법을 응용해 만든 기도법으로 1967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처음 시작했다.

생전 성철 스님은 “기도의 참뜻은 문자 해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해 열심히 염송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백련암에서 아비라 기도에 참가한 대중들은 스님의 뜻을 받아 108배 예불 참회, 장계합장 비로자나법신진언 염송, 능엄주

독송 등을 한 시간 단위로 1회씩 총 24회를 진행했다.

또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도 10일부터 3000배 정진이 철야로 이어졌으며 1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는 탄신 100주년 다례제가 봉행됐다.

성철 스님의 1967년 동안거 법문 내용을 담은 <백일법문>에 대한 공부 열기도 식지 않고 활발히 진행됐다.

<백일법문>강좌 매주 월요일

불교인재원은 3월 5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7-9시 원택 스님과 서재영 박사, 김성철 금강대 교수 등을 초청해 백일법문 강좌를 개설했다.

<백일법문>은 성철 스님이 1967년 해인총림 방장이 된 뒤 첫 동안거(冬安居)를 맞아 해인사에서 설한 법문이다.

성철 스님은 상권에서 초기불교 교리와 중도(中道)·중관(中觀)·유식(唯識) 등을 하권에서 천태종과 화엄종 및 선종 사상, 조사어록, 돈오돈수·돈오점수론을 다뤘

다. 첫 강사로 나선 원택 스님은 “책 출간 후 성철 스님이 오타가 있다고 꾸지람을 하셔서 법정 스님에게 물었더니 ‘나도 3권을 짤 때해야 오타가 다 잡힌다’고 답을 해서 ‘다행히 2000권만 짤었으니 다음에 수정하면 됩니다’라고 전했다”는 일화를 소개해 큰 호응을 받았다.

스님은 <백일법문>이 출간된 사연부터 발행된 과정을 소개하며 50여 강좌 참가자들의 학구열을 높였다.

강좌는 총 12회로 매주 월요일 진행된다. 또 백련불교문화재단과 불교인재원은 성철 스님의 탄생지부터 열반지까지 모두 24곳의 수행도량을 순례하며 성철 스님 추모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순례는 오는 31일 생가인 경남 산청 검외사를 시작으로 매월 1개 사찰을 찾아가며, 2013년 서산 간월암, 보은 법주사, 문경 대승사 등 수행처를 거쳐 2014년 8월 스님이 열반하신 백련암에서 회향한다.

글=노덕현 기자 · 이은정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대모집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서울 경기 전국 학인 대모집

집중 5일 완성
저자: 법화종현(정흥교) 큰스님 작강

- 자비실천불교연합회장
- 천왕사 불교대학장
- 불교학과교수
- 구단구궁법 창시자

만세력 없이도 일생을 꿰뚫어 보는 비술

[구단구궁 원리도]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호

부산, 경상, 호남, 충청, 강원지역 교육안내!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천왕사불교대학분원

<p>강의 일정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일 - 구단 구궁의 제법칙 ◆ 제3일 - 부교재 중심 (일련의 사제 재해석) ◆ 제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사찰·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구단구궁으로 짚어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특별 교수초청 학과 안내

◆ 정봉 스님 ◆

- ◆ 퇴마, 빙의 치유 5일 완성
빙의, 우울증상, 불면증 등 각종 문제 해결
- ◆ 작명 성명학 속성 3일 완성
음오행, 수리오행, 삼원오행, 한자획수를 이용한 작명비법!
- ◆ 민중의술 5일 완성
(침·뜸·사혈)

· 구궁법 창시자 법화종현스님 외에 강의 및 인쇄물, 저작물 등을 배포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 인터넷·TV·라디오 등 미디어 매체도 포함 됩니다.